

외교부

일본 국회의원 후루야 게이지 제재 결정 발표

3월 30일, 외교부는 일본 국회 중의원 후루야 게이지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을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 국회 중의원 후루야 게이지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 (2026년 3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령 제 20호 발표,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

일본 국회 중의원 후루야 게이지는 중국측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여러차례 대만을 왕래하며 '대만독립' 분열세력과 결탁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국 내정을 조악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엄중히 훼손했다. <중화인민공화국대외제재법> 제 3조, 제 4조, 제 6조, 제 9조,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측은 후루야 게이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1. 해당 인물의 중국 경내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을 동결한다. 2. 중국 경내 조직, 개인이 해당 인물과 관련 거래, 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3. 해당 인물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입국(항항, 오문 포함)을 불가한다. 본 결정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제재 명단

외교부 2026년 3월 30일

제재 명단

후루야 게이지 (古屋圭司, FURUYA Keiji), 남, 1952년 11월 1일생, 일본 국적.

외교부:

상황에 따라 후루야 게이지에 추가 징벌 조치

외교부는 3월 30일 일본 국회 중의원 후루야 게이지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을 발표했다. 외교부 대변인 모닝은 3월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답변 시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이익중의 핵심으로 넘어서는 안될 최선이라고 밝혔다. 모닝은 중국측은 일본 국회 중의원 후루야 게이지의 중국 대만지역 방문과 관련해 일본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모닝은 일본 지도자가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한 후 중국측은 여러차례 엄정한 입장을 천명했지

만 후루야 게이지는 여전히 '대만독립' 분열세력과 지속적으로 결탁하여 사단을 일으키며 중국 내정을 엄중히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핵심이익을 엄중히 침해했다고 말했다. 중국측은 <중화인민공화국대외제재법>에 따라 후루야 게이지의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 외교부령을 내리고 제재 조치를 발표하여 그를 징계함으로써 경계로 삼도록 했다. 또한 중국측은 상황에 따라 그에게 다른 모든 필요한 징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넷

중국국제항공, 중조간 려객 운항 재개



3월 30일, 조선 주재 중국대사 왕이군이 공항에 나와 중국국제항공 항공편으로 조선에 온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인민넷

북경에서 조선 수도 평양으로 떠난 중국국제항공 려객기가 3월 30일 아침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중국국제항공의 중조간 려객 운항이 정식으로 재

개됐다. 조선 주재 중국대사 왕이군 등 대사관 외교관들은 공항에 나와 해당 항공편으로 조선에 온 승객들을 맞이했다. /신화넷

파키스탄 :

미국과 이란, 파키스탄 협상 중재에 신뢰 표명



3월 29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장 파이살 알 시우드(왼쪽 첫번째),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부장 이샤크 다르(왼쪽 두번째), 토이기 외교부장 하칸 피단(오른쪽 두번째), 애급 외교부장 바드르 압델아티가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신화넷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부장 이샤크 다르는 3월 29일 성명을 발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해 파키스탄 지도부가 미국 지도부와 계속 소통해왔으며 미국과 이란이 파키

스탄의 협상 중재에 신뢰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날 파키스탄, 토이기, 애급,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 외교부장 회담 성과를 전했다. 성명은 다르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될 미국과 이란간 협상의 전망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으며 참석 각국 외교부장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4개국은 외교부장들로 구

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성명은 4개국 외교부장이 현재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 상세하고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지역 전쟁을 조속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4개국 외교부장은 지속되는 충돌이 지역 전체 주민들의 생명과 생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은 4개국 외교부장은 각국이 단결하여 정세 악화를 억제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 위험을 낮추며 관련 당사자들의 협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4개국 외교부장은 대화와 외교가 분쟁을 예방하고 지역 평화와 조화를 촉진하는 유일한 실행 가능 경로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존중하는 등 유엔헌장의 여러 원칙을 지킬 것을 관련 당사자들에 촉구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지역 내 미국 군사기지 등을 목표로 보복 공격을 감행해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르는 지난 3월 26일 미국과 이란간 간접 협상이 파키스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화넷

트럼프 : 가장 원하는 것은 이란 석유 탈취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3월 29일 미국과 이란이 '중개자' 파키스탄을 통해 진행된 간접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이 정전을 위한 '15가지 계획'의 "대부분 내용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란의 '석유를 탈취하는 것'이라며 이란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크섬 점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날 영국 《금융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처럼' 이란에서의 '석유 탈취'를 원한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란의 석유를 탈취하는 것이지만 미국내에서는 일부 '바보'들이 '왜 그러려고 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들은 그저 바보짜일 뿐이다."

트럼프는 "우리는 하르크섬을 점령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많은 선택이 있다. 이는 우리가 하르크섬에 한동안 주둔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르크섬에 대한 이란의 방어 상황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란이 하르크섬에 대한 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고 인정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다."

하르크섬은 페르시아만 서북쪽에 위치, 이란 해안에서 약 2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길이 약 6킬로미터, 너비 약 3킬로미터인 하르크섬은 이란 최대 석유 수출 기지로 이란 원유의 90%가 이곳에서 수출된다. 미군은 지난 3월 13일 하르크섬에 대규모 타격을 가해 "섬 안의 90여개 군사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지만" 석유 기반 시설은 "보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금융시보》에 미국-이란 간접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며칠내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개통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는 "우리에게는 아직 약 3,000개의 목표물이 남아있다. 이미 1만 3,000개의 목표물을 폭격했으며 앞으로 수천개의 목표물을 더 타격해야 한다. 협정은 곧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늦은 시각 트럼프는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이 정전 '15가지 계획'의 "대부분 내용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대부분의 조항에 동의했다. 그들이 동



3월 3일, 훼손된 이란 테헤란 골레스탄궁전. '장미의 궁전'이라고도 불리는 골레스탄궁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신화넷

의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트럼프는 또 이란이 미국에 인도할 석유가 곧 운송을 시작할 것이라며 "그들의 성의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석유 20척 분을 주었고 래일부터 선적을 시작한다."

이란측은 이란이 '큰 선물'을 보냈다는 트럼프의 과거 발언은 정치적 쇼로 사실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측과의 협상과 관련해 이란

이슬람협의회 의장 칼리바프는 이를 부인하며 "거짓 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금음 및 석유 시장을 조작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깊이 빠진 수렁에서 벗어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란 여론은 이 허위 정보를 날조한 것은 칼리바프 암살을 위한 구실을 만드는 동시에 이란내 분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신화넷

Advertisement for the Chinese Cultural Heritage Festival. It features a colorful illustration of a woman in traditional dress, a rooster, and a large red banner with the text '勤善为本 吉福满门' (Diligence and Goodness are the Foundation, Auspicious Fortune Fills the Door). To the right, a list of values is presented: 富强民主文明和谐 (Prosperity, Freedom, Equality, Justice, Harmony), 自由平等公正法治 (Freedom, Equality, Justice, Rule of Law), 爱国敬业诚信友善 (Patriotism, Dedication, Integrity, Kindness). The bottom right corner includes the text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China Federation of Literary and Art Circles Propaganda and Education Center, China Civilization Network).